

대스리랑카 원조동향

1. 세계은행

세계은행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자조교육 프로젝트”는 그 동안 스리랑카 내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특정인이나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수행되면서 지원금 오용이나 낭비 등으로 인해 실패로 끝난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과 지원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소득증대 방법들을 도입하며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과 재정운영, 자영업 운영 등을 교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세계은행은 이 사업에 5천만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일본정부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 3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일본

일본정부는 스리랑카에 대한 36번째 장기저리 차관으로 266억 3,100만엔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 이번 차관은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재건 및 향상 프로젝트 2차 사업”, “소규모 기업 운영자 향상 프로젝트 2차 사업”, “환경친화적 해결(산업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 2차 사업” 등 동북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될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

JICA가 파견한 「신 마납피티야 교량 건설 사업」의 기본설계 연구조사팀이 1개월간의 모든 조사를 마치고 동 사업의 적정성 평가 내용과 기본 설계도 초안을 스리랑카 도로청에 제출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2005년 1월에 제출 예정임. 290m 길이의 현재 다리는 중북부 주에서 동부의 바티칼로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동북부 주요지역인 폴로나루와와 암파라 지역에서 마하웰리로 가는 주요 접근도로로 현재도 많은 교통량이 있고 앞으로도 교통량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80여년 전에 건설되어 매우 낡고 비좁은 상태임

3.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지방 전기화 사업에 2천만불의 무이자 장기차관을 제공함. 이번 차관은 스리랑카 전역 268마을의 43,5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공급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번 사업은 2007년 중반기에 완료될 예정임

4. 독일

독일 기술협력청(GTZ)과 UN 식량농업기구(FAO)가 스리랑카 어업수산자원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프나 지역 3개 수산 공판장 지원 사업이 출범함. 이 사업은 내전으로 파괴된 북부지역 어민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독일정부가 64백만 루피(약 64만불)를 지원함

5. 중국

중국정부는 스리랑카의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루피(약 5백만불)를 무상공여함. 이 중에서 5천만 루피는 가뭄 피해 복구에 사용되며, 나머지 4.5억 루피는 향후 양국 정부의 결정을 거쳐 제반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으로 문화, 관개(시설), 지방 전력화 사업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함

6. 기타

영국의 의료봉사단체인 “Inter Plast”가 Rajapakse 재단의 초청으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에서 10.17-31간 약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성형수술 활동을 전개함. 이번 봉사활동은 스리랑카를 포함하여 영국, 독일, 미국 등 6개국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의사는 스리랑카 2명을 포함하여 9명이었음

[자료 : 주스리랑카 사무소]